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PTU적성 모의적성고사

수험번호	
성 명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모의적성고사 문제지

국어영역 25문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나 하늘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주와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에 대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밤하늘을 관측하고 이해했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들은 후) 역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군요. 오늘 저는 천문학의 역사를 통해 선조들의 과학 정신과 전통 천문학의 가치에 대해 강연하고자 합니다.

(사진 1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고인돌입니다. 한반도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고인돌 덮개돌에 있는 이 홈들이 별자리 모양을 닮은 것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전통 천문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2를 보여주며)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주 첨성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첨성대에는 24절기와 1년 12달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관측된 기록이 대부분 사실이였음이 밝혀졌고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자적인 관측 기록도 확인되어 삼국 시대에 천문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3을 보여 주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바로 개성 첨성대입니다. 이는 고려의 왕실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가 훼손되어 경주 첨성대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천문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흑점이나 오로라 관측 기록을 보면 오랫동안 태양 활동을 꾸준히 관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4를 보여 주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조선 세종 초에 만들어진 천문 의기들입니다. 중국의 천문 의기를 모방하기는 했지만 점차 독

창적인 의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혼천의나 해시계도 모두 이때 만들어진 우리의 대표적 과학 문화재들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천문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 현상,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대해 연구한 흔적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천문 유산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천문학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체계적인 천문 활동을 통해 남겨진 여러 천문 유산은 하늘을 사랑한 우리 민족의 과학적 우수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천문학을 연구하는 일은 곧 우리 문명의 기원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에 관측된 천문 현상 기록은 일반 역사를 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문 현상은 물리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현상도 정확히 추적하여 재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천문 과학의 발자취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책이 아닌, 하늘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전통의 과학 정신이 더 크게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을 위해 계획한 내용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시간적 순서로 내용을 구성한다.
- ② 강연자는 청중을 각듯이 존중하기 위해 격식체만을 사용한다.
- ③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활용한다.
- ④ 강연을 들은 후 청중의 마음속에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감성적 메시지를 활용한다.

2. 청중이 강연을 들은 후 추가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조선시대에는 침성대가 없었나요?
- 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ㄷ. 고인돌 덮개에 별자리 모양의 홈을 새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 ㄹ. 혼천의나 해시계는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운전 중 모든 상황을 예측, 판단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음주 운전이나 졸음운전이 없고, 주의력이 분산되는 일이 없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전혀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법적으로 누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 중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려야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프로그래머나 법률가만의 몫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율 주행 프로그램의 의사 결정 체계가 우리 법체계에 주는 시사점은 윤리적 판단이란 무엇인가와 인간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건전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연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율 주행 프로그램의 의사 결정은 헌법적 가치 평가를 통해 승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예컨대 손해나 사고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은 결국 손해를 최소화할 피해자를 고르는 선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차별 금지나 평등권, 인간 존엄의 가치 등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달리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의 특정 유형을 선택하도록 설정되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과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개발 시점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율 주행 프로그램의 의사 결정이 ㉡초래할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자율 주행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는지가 인간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자율 주행 자동차보다 더 무거운 차량을 회피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에 따라 무거운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거나, 특정 조건의 보행자나 자동차를 회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 인간 운전자가 자율 주행 프로그램을 역이용하여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파생 효과를 고려한 입법적 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주행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체계 내부에 법적 규율의 요소가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적 규율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 법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체계가 곧바로 인공 지능이 인지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교통 법규의 구조화나 위계화가 아직 미흡하여 자율 주행 프로그램의 인공 지능 시스템과 쉽게 결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3. 다음은 글쓰기 전 단계에서 고려한 것들이다. 윗 글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율 주행 자동차’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글을 시작하자.
- ②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언급하자.
- ③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사고 발생 빈도를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자.
- ④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자.

4. ㉠~㉤를 문맥에 맞게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려운 문제나 일 따위를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숙고할’로 바꾸어야겠군.
- ② ㉡: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발상은’으로 바꾸어야겠군.
- ③ ㉢: 어떤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청함이라는 의미가 적절하므로 ‘초대할’로 바꾸어야겠군.
- ④ ㉤: 빠짐없이 갖추어지다라는 의미가 적절하므로 ‘구비되어’로 바꾸어야겠군.

5. 밑글에 사용된 쓰기 전략은?

- 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주된 표현 전략으로 삼고 있다.
- ②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필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재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게 위해 논의 대상과 관련된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

6. 다음은 합성어이다. 단어 형성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 ① 덮밥
- ② 젊은이
- ③ 큰집
- ④ 돌다리

7. 다음 문장 중 홀문장은 무엇인가?

- ① 우리 가족은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한다.
- ② 나는 따뜻한 봄을 좋아한다.
- ③ 기호는 봄이 오면 남도로 떠날 것이다.
- ④ 봄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8. ㉠, ㉡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의 된소리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규칙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ㅂ, ㄷ, ㄱ’과 같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속+지→[속찌]’, 밥+도→[밥또]’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이 그 예이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예외가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비음에 속하는 ㉡ ‘ㅁ,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삼+지→[삼:찌]’, 안+고→[안:꼬]’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이 그 예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조건이 까다롭다. ‘용언’이라는 문법적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형태소도 문법 형태소 중 어미에만 국한된다. ‘안기다’와 같이 용언 어간 ‘안-’뒤에 접미사 ‘-기-’가 올 때 된소리되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 | |
|---|-----------|------------|
| | ㉠ | ㉡ |
| ① | 법+ 치→[법치] | 안+ 방→[안빵] |
| ② | 만+ 형→[마형] | 숨+ 고→[숨:꼬] |
| ③ | 춤+ 고→[춤꼬] | 감+ 다→[감:따] |
| ④ | 국+ 사→[국싸] | 인+ 기→[인끼] |

9. 다음 중 맞춤법 혹은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① 이 곳에서는 담배를 삼가주세요.
- ② 그는 잘 생겼다. 더욱이 공부까지 잘한다.
- ③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데 이유가 있다.
- ④ 대통령이 곧 도착하신대.

10.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목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학습 자료

㉑孔子(공자) | 曾子(증자)드려 닐러 곶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㉒솔흔 父母(부모)의 ㉓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오 디 아니 흠이 효도이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히야 일흠을 後世(후세)에 배 퍼 ㉔뵈 父母(부모)를 현더케 흠이 효도이 므 춤이니라

-『소학언해』-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로되, 몸이며 모습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혈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배풀어 부모님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학습 자료의 활용 계획

㉔

- ① ㉑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② ㉒ :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㉓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로 ‘-즈-’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㉔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의 주류 학문은 문명 대(對) 놀이, 혹은 노동 대 놀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 속에서 놀이를 파악하는 ㉑관행에 젖어 있었다. 특히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는 이성 중심주의는 문명을 이성을 가진 인류의 특권으로 이해하면서 놀이를 인간의 감정과 본능의 산물로 파악하고, 놀이가

인간을 감각적 세계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간주해 왔다. 문명과 놀이의 이분법적 대립은 근대 산업 사회 이후 노동과 놀이의 대립으로 이어져서 놀이는 단지 오락이나 일종의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노동과 놀이를 유용성과 무용성,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 구도로 재생산하면서 놀이학 성립의 강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하위징아는 놀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고 규정하였다. 호모 루덴스란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말로 인간의 본질이 놀이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위징아는 놀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놀이의 주요한 특성들을 서술하여 놀이의 본질에 접근한다. 이러한 우회적인 시도를 통해 하위징아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모든 놀이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명령에 의한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다. 따라서 놀이는 언제든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물리적 욕구나 도덕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 둘째, 놀이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가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하위징아의 말처럼 놀이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는 척’하는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하여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쾌락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허구적인 놀이지만 그 효과는 실제적인 것이다. 하지만 놀이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놀이 자체를 부인하면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가상에 대한 믿음은 놀이의 필수 전제이고 그래야만 놀이가 성립된다. 셋째, 놀이는 ‘탈일상적 관심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놀이는 노동과 달리 현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충족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에서 탈일상적이다. 하지만 놀이는 즐거움과 쾌락,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삶의 기능으로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삶에 대한 관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놀이는 현실 원칙과는 다른 차원의 원칙인 ㉒쾌락 원칙을 따르는 탈일상적 관심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본 것이다.

하위징아는 놀이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놀이가 두 가지의 근본적인 기능, 즉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투쟁과 어떤 것에 관한 표현이라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도 전자가 더욱 근본적인 기능인데,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에도 가장 좋은 표현을 얻기 위한 투쟁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이의 이러한 근본적 기능으로 인해 놀이를 통해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고 표현을 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가 생겨났다고 보고 놀이를 문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를 인류가 창조한 모든 것이라고 본다면 굶이나 축제와 같은 특별한 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또한 놀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놀이를 학문의 영역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린 카유아는 놀이가 가진 규칙성의 유무에 따라 ‘paidia(paidia)’와 ‘ludus(ludus)’로 놀이의 유형을 구분한다. 우선 paidia는 통제되지 않은 어떤 일시적인 기분이 ㉠표출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놀이본능의 자발적 표출로서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놀이의 경향을 의미하며 놀이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ludus는 놀이가 제도화되면서 규칙이 놀이를 지배하는 경향을 말한다. 나아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목표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또한 카유아는 놀이의 속성에 따라 놀이의 유형을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아곤’이란 경쟁자와 겨워서 자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놀이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놀이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과 노력,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알레아’란 주사위처럼 놀이하는 자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는 운수나 운명에 놀이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미미크리’란 시간적 또는 공간적 한계를 정해 놓고 일시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다. 즉 역할극처럼 가상 인물의 역할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일링크스’는 현기증이 나서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것으로 ㉡무아도취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일시적인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일종의 기분 좋은 패닉 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카유아는 놀이를 명령이 아닌 인간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하위징아와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를 가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단지 하는 척’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놀이가 현실 원칙이 아닌 쾌락 원칙을 따르는 탈일상적 관심성을 갖는다고 보았다는 점도 하위징아의 견해와 같다. 하지만 놀이가 일상의 문화를 창조한 원동력이라는 하위징아의 견해와 달리 카유아는 놀이를 일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활동이라고 보았다. 약속된 가상의 세계 속에서 놀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놀이 공간은 일상의 공간과 분리된 ‘순수 공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놀이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놀이일 뿐이라는 카유아의 주장은 놀이를 인간의 삶과 같은 문화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하위징아의 의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학자들의 상이한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한 한 학자의 관점에서 다른 학자의 견해가 갖는 한계를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1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성 중심주의는 노동과 놀이를 유용성과 무용성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 ② 카유아는 놀이가 가진 규칙성의 유무에 따라 놀이의 유형을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 ③ 하위징아는 일상생활을 놀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카유아는 놀이를 일상생활과 분리되고 구별된 활동으로 보았다.
- ④ 카유아는 놀이를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닌 인간의 자발적 행위로 보았다.

13.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음으로 진리를 관조하여 이를 몸소 실행함.
- ② ㉡: 될 수 있는 한 불쾌감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려는 무의식의 경향
- ③ ㉢: 속에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냄.
- ④ ㉣: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흠뻑 취함.

14.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쟁하며 승패를 겨루는 축구와 농구 같은 게임은 ‘아곤’에 해당하겠군.
- ② 나는 게임을 할 때, 항상 운이 따르는 편이야. 그래서 룰렛 같은 ‘알레아’ 유형의 게임을 좋아해.
- ③ 어린 시절 종종 하곤 했던 소꿉놀이가 ‘미미크리’ 유형이구나.
- ④ 나는 감추어 놓은 대상을 찾는 술래잡기 놀이, 즉 ‘일링크스’ 유형의 놀이를 할 때 기분이 좋아.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던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뭘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물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縠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쓰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던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례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중략)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 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그동안에 눈이 서너 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뜰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 목처럼 오그라뜨리었다. 맨 끝에 달린 찻간 앞까

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켜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과 마주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이였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요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무어라고 속삭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피게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행뎡그레한 속으로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웅기중기 사람들이 모여 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별관에 세워 둘 지경이면어서 찻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흘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댕 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땀땀이가 된 ⑥치마저고리의 매무시까지 흘려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싹싹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⑦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떨거니 얼이 빠져 섰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가] 정거장 문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밝으며 큰길 거리로 나가니까 칠 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 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짹짹 찰랑찰랑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

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 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렇다.

다시 돌쳐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엷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⑧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떨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혜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⑨‘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목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염상섭, 「만세전(萬歲前)」

*내지: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일본을 가리킴.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어 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사회의 발전상을 표현하고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제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범죄를 저지른 여성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③ ㉢: 헌병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 청년을 보고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며 ‘나’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④ ㉣: 혼잣말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우리 민족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고 사용한 말이고 ㉡는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려고 사용한 소재이다.
- ② ㉠은 애급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소재이며 ㉡는 우리 민족의 가난함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③ ㉠은 우리 민족 전통의 유구함과 화려함을 나타내는 소재이며 ㉡는 우리 민족의 쇠퇴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④ ㉠은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함을 상징하는 소재이며 ㉡는 이승의 삶이 중요하다는 ‘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18. 윗글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기차 안에서 사람들과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는 ‘나’의 얼굴 표정을 부각하여 조선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줘야겠어.
- ② ‘나’가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으로 걸어가는 장면에서는 ‘나’를 먼 거리에서 포착하여 여행 가운데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드러내야겠군.
- ③ 당시 일본 상점의 외관은 어떠했는지 조사하여 ‘나’가 거니는 정거장 밖 거리의 일본 상점을 꾸미는 데 반영해야겠어.

- ④ 난로 문틈으로 비치는 빨간 불길을 클로즈업하여 혁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 내 눈에 뜨거
 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
 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㉔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덜용배기: 질용배기.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가 어지럽게 얼크러진 뭉텅이에 피운 불.

*나죽손: 저녁 무렵.

*갈매나무: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의 쌍떡잎식물. 높이 5m 정도의 낙엽 활엽 관목.

1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자연의 풍경을 다채롭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제목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은 화자가 거처하는 주소지를 말한다.
- ③ 화자는 자신의 근황과 심정을 서간문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객지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운명과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20. ㉔~㉖ 중 그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㉔: 갈대를 여러 가닥으로 줄지어 매거나 묶어서 만든 자리
- ② ㉕: 무르고 부드럽다.
- ③ ㉖: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 ④ ㉖: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21. ㉑~㉓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 생각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② ㉒: 지난 시절을 철저히 솔직하게 돌아보며 느끼는 회한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화자는 이 세상에는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④ ㉓: 삶에서 느꼈던 슬픔과 한탄이 북받쳐 오르며 급기야 외로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단풍 구경을 나섰다가 전 선천 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필성과 혼인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을 할 생각에 허 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한다.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던 중 김 진사 일행은 도적을 만나고, 혼란 중에 채봉은 도망하여 평양으로 돌아온다.

김 진사는 자결이라도 하고 싶으나 헛된 욕심에 눈앞이 어두워 홀로 생각하기를, ‘서울에 오천 냥 맡긴 것이 있고, 더군다나 그간 과천 현감이 되었을 터이니, 몸이 귀히 된 후 채봉도 수소문하여 찾고 재산도 다시 모으리라.’하고 나머지 살림을 팔아 노자를 마련한 후 두 내외가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상경한 김 진사 내외는 전에 목었던 객줏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찾아갔다. 허 판서는 김 진사를 보고 반기며,

“오, 김 과천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 데 힘들지 않았는가? 자, 우선 급할 터이니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하더니 문갑에서 ㉑칙지를 내어 준다. 김 진사가 칙지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혼 빠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감히 받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왜,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고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는,

“대감 덕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

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겪어 대감 뵈을 낮이 없습니다.”

허 판서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을 고비를 겪다니?”

김 진사가 **㉔자초지중**을 다 말하니, 허 판서 별안간 눈이 썰쭉해지며 가엾은 생각은커녕,

‘이런 맹랑한 놈을 보겠나! 어찌 되든 과천 현감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을 하더니 이제 와서 판소리를 해!’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놀라는 체한 후에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본다.

“참으로 고생했네.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왜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감 위력이나 빌려 가지고 찾으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허 판서가 얼굴이 별게지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놈! 소위 부모가 되어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 하고, 뉘 힘을 빌려서 찾으려고 해? **㉕맹랑한 놈!**”

하더니 별안간 하인을 불러 옥에 가두라 이른다.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그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갈 때는 **㉖주선해** 주마 하더니 현감 자리가 굴러 들어오고 나니까 판소리를 해!” 하고 다시 말할 새도 없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둔다.

[중략 부분의 즐거리] 평양으로 돌아온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허 판서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돈을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다. 한편 평양 감사 이보국은 송이가 서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몸값을 주고 송이를 데려가고자 한다.

“송이를 내가 부리고자 하여 본전에 천 냥을 더 주는 것이니, 네 마음은 어떠하냐?”

기생 어미의 생각에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어찌하리오.

“몸값을 아니 주셔도 바치라 하시면 거역 못할 터이온데, 하물며 돈을 더 보태 주시니 무슨 잔말을 하오리까.”

하고 칠천 냥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 후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감사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돕는다.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이다. 이 감사가 보는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나 혼자 있을 때에는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

장필성은 송이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나, 송이가 있는 별당은 사람 출입을 일절 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초조하다.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한 계책을 생각해 낸다.

‘나도 감사 옆에서 공사를 보는 관속이 되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선을 하던 중, 마침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방면으로 힘을 써 이방이 된다. 그렇게 감사를 뵈오니,

“가히 훌륭한 인재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이 불편 없도록 잘 거행하거라.

장필성은 공손하게 감사의 명을 받들고 이후로는 **㉗공사** 문서를 가지고 매일 관가에 드나든다. 그러나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도 별당이 깊고 깊어, 가까이 있어도 천 리와 같다.

한편 송이는 감사가 공사에 쓸 것을 주면 쓰라는 것은 쓰고 빠라는 것은 빼면서 별당에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채봉이 **㉘문서** 한 장을 보는데 장필성의 글씨가 분명하다.

‘이상하다. 글씨가 서방님 필체와 같으니, 혹시 관가에 드나드시는 일이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감사에게 묻는다.

“요사이 공사 문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장필성이란 사람을 새로 들였다. 네가 보기에 글씨를 잘 썼느냐?”

이 말을 듣고 송이가 떨 듯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만나지 못하면 편지라도 띄울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아시면 무슨 죄를 내리실지 몰라…….’

하고 기회를 기다리나 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서로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기를 어느덧 반년이라. 그리움이 사무쳐 서로 상사병이 날 지경이다.

-작자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진사는 딸아이에게 맺어줄 배필을 찾고 있다.
- ② 송이와 장필성은 감사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 ③ 송이는 부모와 헤어진 후 부모의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다.
- ④ 장필성은 관속이 된 후 우연히 송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 ② ㉠은 인물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은 노동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 ③ ㉠은 인물의 불행을 초래하는 소재이고, ㉡은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지니고, ㉡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

24. ㉠~㉣ 중 단어의 의미 파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 ② ㉡: 함부로 알잡아 볼 수 없을 만큼 깜찍하고 당돌하다.
- ③ ㉢: 잘되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쓰다.
- ④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2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호: 당시 지배층은 관직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뺏을 수 있었구나.
- ② 민호: 서화가 능하다는 것은 기생에게 큰 장점이었구나.
- ③ 영민: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기생 어미’를 통해 양반의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민욱: 평양 감사에게 자신의 연인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장필성은 유약한 사내야.

수학영역 25문항

1. 두 함수 $f(x) = 2x$, $g(x) = -2x$ 에 대하여 $(f \circ g)(a) = 12$ 를 만족시키는 실수 a 의 값은?
 ① -3 ② -1 ③ 1 ④ 3

2. 함수 $f(x) = ax + b$ ($a > 0$)에 대하여 $f(-1) = -3$, $f(1) = f^{-1}(1)$ 일 때, $a + b$ 의 값은? (단, a, b 는 상수)
 ① 1 ② 0 ③ -1 ④ -2

3.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n = 2n$ 일 때, $\sum_{i=1}^{10} a_i$ 의 값은?
 ① 115 ② 110 ③ 105 ④ 100

4.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2 = 3$, $a_6 = 27$ 일 때, $\frac{a_{12}}{a_4}$ 의 값은?
 ① 9 ② 27 ③ 81 ④ 243

5. 세 수 $a, 1, b$ 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세 수 $a, a+b, 4$ 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 b$ 의 값은?
 ① -1 ② 0 ③ 1 ④ 2

6. 함수 $f(x) = \sqrt{2x}$ 에 대하여 $(f \circ f)(1) = 2^{\frac{p}{q}}$ 일 때, $p+q$ 의 값은?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 ① 4 ② 5 ③ 6 ④ 7

7. $\log_2 16 - 4\log_2 \sqrt{2} + \log_2 \frac{1}{2}$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8. $x = \sqrt{2} - \frac{1}{\sqrt{8}}$ 일 때 $\frac{9}{x^2}$ 의 값은?

- ① 9 ② 8 ③ $2\sqrt{3}$ ④ $2\sqrt{2}$

9.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 사용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숫자 3이 포함되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 ① 59 ② 61 ③ 63 ④ 65

10.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이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는?

- ① 2 ② 4 ③ 6 ④ 8

11. 두 사건 A, B 에 대하여 $P(A) = \frac{1}{4}, P(B) = \frac{1}{3},$

$P(A \cup B) = \frac{5}{12}$ 일 때, $P(A^c \cup B^c)$ 의 값은?

(단, A^c 는 A 의 여사건이다.)

- ① $\frac{1}{3}$ ② $\frac{1}{2}$ ③ $\frac{2}{3}$ ④ $\frac{5}{6}$

12. 세 명의 학생이 임의로 가위, 바위, 보 중 하나를 낼 때, 한 번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한 명일 확률은?

- ① $\frac{7}{27}$ ② $\frac{8}{27}$ ③ $\frac{1}{3}$ ④ $\frac{10}{27}$

13. 확률변수 X 에 대하여 $E(3X) = 9$, $E(2X^2) = 20$ 일 때, $V(3X)$ 의 값은?

- ① 9 ② 10 ③ 11 ④ 12

14. 연속확률변수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3$ 이고 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 $f(x)$ 가 $f(x) = kx$ ($0 \leq x \leq 3$)일 때, 상수 k 의 값은?

- ① $\frac{1}{9}$ ② $\frac{2}{9}$ ③ $\frac{1}{3}$ ④ $\frac{4}{9}$

15.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가 아래 표와 같다.

$E(X) = \frac{8}{3}$ 일 때,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a - b$ 의 값은?

X	2	3	4	계
$P(X=x)$	a	$\frac{1}{3}$	b	1

- ① $\frac{1}{12}$ ② $\frac{1}{6}$ ③ $\frac{1}{4}$ ④ $\frac{1}{3}$

16. $\lim_{n \rightarrow \infty} \left(\frac{4n^2}{n-1} - \frac{4n^3}{n^2+1} \right)$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17. 두 수열 $\{a_n\}$, $\{b_n\}$ 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a_n - 2) = 2$, $\lim_{n \rightarrow \infty} (a_n + 2b_n) = 6$ 일 때 ,

$\lim_{n \rightarrow \infty} \frac{2a_n - b_n}{a_n + b_n}$ 의 값은? (단, $a_n + b_n \neq 0$)

- ① $\frac{7}{5}$ ② $\frac{7}{6}$ ③ 1 ④ $\frac{7}{8}$

18. $\lim_{x \rightarrow 3} \frac{\sqrt{x+1}-2}{x^2-9}$ 의 값은?

- ① $\frac{1}{6}$ ② $\frac{1}{12}$ ③ $\frac{1}{24}$ ④ $\frac{1}{48}$

19. $\lim_{x \rightarrow 2} \frac{x-2}{x^2+ax+b} = \frac{1}{2}$ 일 때, 두 상수 a , b 에 대하여 $a+b$ 의 값은?

- ① -6 ② -4 ③ -2 ④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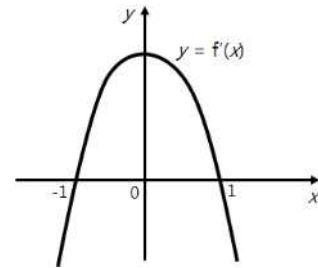
20. 함수 $f(x) = \begin{cases} x^3 + 3a & (x \geq 1) \\ ax + 7 & (x < 1) \end{cases}$ 이 $x = 1$ 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21. 함수 $f(x) = x^3 + 3x^2 - 2$ 에 대하여 $f'(2)$ 의 값은?

- ① 12 ② 16 ③ 20 ④ 24

22. 삼차함수 $f(x) = ax^3 + (a^2 - 4)x^2 + bx$ 에 대하여 $f'(-1) = f'(1) = 0$, $f'(0) > 0$ 이다. $f(-2)$ 의 값은? (단, a, b 는 상수이다.)



- ① 1 ② 2 ③ 3 ④ 4

23.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f(x) = \frac{d}{dx} \int (3f(x) - 2x^2) dx \text{ 일 때, } f(2) \text{의 값은?}$$

- ① 4 ② 3 ③ 2 ④ 1

24. $\int_0^1 (2x+a)dx=3$ 일 때, 상수 a 의 값은?

- ① 2 ② 4 ③ 6 ④ 8

25. 함수 $f(x) = x^2 + 4x + 4$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2} \frac{1}{x-2} \int_2^x f(t)dt$ 의 값은?

- ① 32 ② 16 ③ 0 ④ -16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홍보팀 전화 : 031-659-8000
